

‘우리가 함께’ 선본 “학교와의 수직적 관계 탈피”

‘디딤돌’ 선본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국제캠 총학후보 인터뷰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선 지난 3월 13일부로 ‘2017학년도 학생회 재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총학생회(총학)에는 ▲‘우리가 함께’ 선거본부(선본)의 유매연(환경학 및 환경공학 2013) 정후보와 ▲‘디딤돌’ 선본의 진도원(스페인어학 2011) 정후보, 이화영(기계공학 2015) 부후보가 출마했다. 두 선본의 공약에서 일정한 공통점이 발견되는 동시에 미묘한 차이도 발견된다.

‘학우들의 직접참여’

‘본부와의 대화와 타협’

먼저 양 선본 모두 ‘취업·불황’등의 사회적 환경을 출마 이유로 꼽았다. ‘우리가 함께’ 선본은 ‘학생들의 직접 참여’와 ‘학생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한 의제설정 및 정책화’를 강조한 한편, ‘디딤돌’ 선본은 ‘대학본부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올바르고 합리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한 점이 차이다.

‘우리가 함께’ 유매연 정후보는 “총학회장은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며 “지금까지 대학본부가 학생들과 이야기 없이 정책 결정을 하고, 사실상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에 화가 났다”고 출마 계기를 밝혔다. ‘디딤돌’ 진도원 정후보는 “변화의 시대 속에 올바르게 합리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부후보와 최대 효율의 파트너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공약에서도...

서로 다른 접근법

양 선본 각자의 공약 중 공통되는 것들도 많았다. ▲입학금 사용내역 ▲캠퍼스이원화 ▲강의 수 증설 ▲종합체육관 이용 ▲기숙사 통금은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세한 차이는 있었다. 먼저 ‘입학금’과 관련해 ‘우리가 함께’ 선본은 법적공방을 선택했다. 지난해 9월부터 ‘입학금 반환’을 위해 소송인단을 구성했고, 오는 3월 30일에는 우리학교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디딤돌’ 선본은 2017학년도 현재 가고지 상태의 등록금 및 입학금에 대한 불명확한 산정근거 내용이 있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배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캠퍼스이원화’ 정책이다. ‘우리가 함께’ 선본은 ‘학내 남아있는 캠퍼스 간 차별’을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장학금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시작이다. ‘디딤돌’ 선본은 ‘캠퍼스 명칭 변경’을 전면에 내세웠다. 동시에 ‘학사제도의 통일’을 이루겠다고 밝히며 전과 제한이나 토익점수를 통한 영어강의 면제 등을 예시로 들었다.

강의 수 증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선본은 ‘필수과목 정원을 학생 수의 110%’로 개설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재수강 인원을 고려해 정원보다 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디딤돌’ 선본 역시 ‘강의 수 증설을 수강신청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진 후보는 “강좌 수를 감소시킨 이유를 학교 측에 물었다”며 “재정악화에도 보장돼야 하는 것이 학습권”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장 후보_우리가 함께, 유매연

우리가 함께, 정의의 변화를 만들어낼



우리가 함께, 유매연입니다.

언제든지, 유매연과 함께해주세요! 010-3213-9527



기호 2

총학생회장 후보 진도원

부총학생회장 후보 이화영

스페인어학과 11

기계공학과 15

국제캠 총학후보 공통공약비교

선본명	공약명	입학금	캠퍼스이원화	강의 수 증대	제2기숙사 통금	주력공약
우리가 함께	반환소송 유지	학내 차별 개선 (장학금 분배)	필수과목 정원 110% 개설	폐지 : 정책투표로 결정		정책투표제 일반학우의 TF참여
디딤돌	본부와 대화·타협	캠퍼스 명칭 변경 학사제도 통일	학사제도TF 통한 협의	폐지 : 분기별 간담회		캠퍼스 명칭 변경 등록금·입학금 산정기준 공개

오는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종합체육관 이용’ 관련 공약도 제시됐다. ‘우리가 함께’ 유 후보는 “일반 학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확보하겠다”라며 “또한 모든 건물의 온라인 강의실 대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딤돌’ 진 후보 역시 “기존 체육시설과 체육관에 대한 온라인 대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내걸었다.

이번 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기숙사 통금제’ 폐지 공약도 제시됐다. 양 선본 모두 학교 측의 일방적인 ‘소통’을 비판했다. ‘우리가 함께’ 유 후보는 “학생 투표를 진행해 통보식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 진 후보는 ‘분기별 간담회’를 제안했다. 그는 “사생들과 기숙사, 총학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겠다”며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기숙사 통금제도는 기숙사 내 잤는 안전사고로 인해 지난 2학기 시행을 예고했다가 한 차례 유예된 것이다. 당시 총학은 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 기간을 가졌다. 실제로 우정원에 비해 신입생 비율이 높은 제2기숙사는 안전사고가 잦다. 총학이 통금제도 폐지를 내건 이상, 기숙사와의 협의를 위해 ‘사고 예방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함께’ 선본

‘학생주권’에 주력

‘우리가 함께’ 선본의 주요 공약은 ▲정책투표제 ▲TF팀 일반학우 참여 ▲실현·실습비 공개 및 재료비 지원 등이다. ‘정책투표제’란 학교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전체 학생 1/10이상의 찬반투표를 거치겠다는 내용이다. ‘실현·실습비 내역 공개 및 재료비 지원’의 경우 예술·디자인대

학 실험·실습비 사용내역을 우선 공개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해 학생 작품의 재료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디딤돌’ 선본

‘대화 통한 변화’ 시도

‘디딤돌’ 선본은 ▲대화 통한 ‘입학금 문제’ 해결 ▲캠퍼스 명칭변경 ▲양 캠퍼스 학사제도 균등 개편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입학금 문제’를 외부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 보단 이원화TF를 통한 내부 소통을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이라는 지명과 ‘국제’라는 예명이 혼재된 우리학교의 캠퍼스 명칭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선본은 우리학교의 기조인 ‘네오’와 ‘르네상스’ 캠퍼스 모델과 학문적 특성인 ‘이문(理文)자연’과 ‘실용과학’ 캠퍼스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전과제도의 제한’이나 ‘토익점수와 영어수강 면제’ 등 캠퍼스 간에 차이나는 ‘학사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놔다.

‘우리’, 5·9학생총회

‘디딤돌’, 이원화 서면약속

‘우리가 함께’ 유 후보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총학에서 중책을 역임했다. 2015년, ‘31대 자주적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거쳐 2016년에는 ‘입학금 반환운동’ 서포터즈 단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유 후보는 ‘5·9 학생총회’를 의미 있는 경험으로 꼽았다. 2013년, ‘5·9 학생총회’는 1,400여명의 학생들이 중앙도서관에 모여 학생총회를 성사시켰다. 총회에서 ‘등록금 인하’에 대한 의사를 개진됐다. 유 후보는 “절대 모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앙도서관에 모인 학우들이 일제히 등록금 인하에 대해 이야기하던 경험이 기억에

가장 남는다”라며 “학우들의 힘으로 중대한 사안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디딤돌’ 진 후보는 2015년 외국어대학 학생회장으로 2016년 48대 총학 학자사무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프라임사업 당시 열린 ‘소통위원회’에 국제캠 학생대표로 참여했다. 이화영 부후보는 2015년, 2016년 기계공학과 학년대표를 지내면서 학과 및 단

과대학 행사에 힘을 보탰다.

진 후보는 프라임사업 당시 ‘양 캠퍼스 부총장의 이원화 관련 서면약속’을 얻어낸 것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꼽았다. 진 후보는 “당시 서면약속을 받아낸 것은 의미 있는 결과물이지만 스스로가 학생이 뽑은 선출직이 아니었다는 한계가 아쉬웠다”라며 “이번 기회에 학우들의 힘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49대 총학은 고질적인 문제인 ▲캠퍼스이원화 문제 해결, ▲교육의 질 확대 문제와 새로이 나타난 ▲미래창조스쿨 출범을 맞게 된다. ‘캠퍼스이원화 문제 해결’과 ‘교육의 질 확대’는 우리신문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각각 ‘2017학년도 우리학교에 필요한 가치’ 1, 2위를 차지했다.

미래창조스쿨에 대해 양 선본은 일제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가 함께’ 유 후보는 “관련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고, 학생들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디딤돌’ 선본은 ‘부총장과 의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한다.

산적인 문제를 해결할

향후 계획에 대해

캠퍼스이원화 문제에 대해 양 선본은 다른 접근 방식을 보였다. ‘우리가 함께’ 선본은 ‘캠퍼스 간 자원 불균형 극복’을, ‘디딤돌’ 선본은 ‘제도 통일’과 ‘캠퍼스 명칭변경’을 전면에 내걸었다.

양 선본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우리가 함께’ 유 후보는 “지금은 총학회장이 없는 채로 학교와의 등록금 협상을 하고 있는 시기인 동시에 여러 정책에서 학교의 일방적 통보가 있었다”라며 “이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할 시기이고, 학우들의 힘으로 바꾸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디딤돌’ 진 후보는 “학우여러분께 긍정적인 변화를 선물하고 싶다”라며 “내부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보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움직이겠다”고 믿음을 호소했다.

국제대·생명과학대, 비대위 체제 장기화 불가피

김은수 기자 eunsu1031@khu.ac.kr

【국제】 국제대학(국제대)과 생명과학대학(생대) 학생회 선거가 또 다시 무산됐다.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치러질 예정이었던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은 까닭이다. 두 단과대 모두 지난해 치러진 학생회 선거에서 후보가 없어 이번 재보궐 선거로 이미 한 차례 유예됐다. 국제대와 생대는 총학 선거가 끝나는 즉시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미 두 차례 연기된 대표자 선출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제대는 학생회장 자리가 공석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국제대 윤민지(국제학 2015) 부학생회장이, 생대는 김대일(식품생명공학 2014) 학생회장이 선관위장을 맡고 있다.

두 단과대학 선관위 모두 총학생회 선거가 끝나는 즉시 재선거를 시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제대 윤민지 선관위원은 “새로운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중선관위)장의 의사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이미 중선관위에서 합의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선관위원장은 “학우들의 도움으로 무리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학생회실이 항상 열려있지는 않아 학우들이 불편함을 겪을까 걱정”이라며 대표자가 부재한 상황에 대해 고충을 밝혔다.

생대에서는 김대일 선관위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할 예정이라, 생대 소속 학과 학생회장들을 중심으로 한 ‘내각제’ 시행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선관위원장은 “예정된 생대 재보궐 선거에서도 학생회장이 선출되지 못하면 새로운 체제로 단대를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학생회장직을 공식으로 두고 학과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